

國語教育은 必要한가?

이 용 주 (서울대 교수)

I.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국어교육의 필요 여부 논의는 국어교육의 성격과 교육 목표, 교육 내용 등 많은 문제들과의 연관에서 행해져야 하며 국어교육을 실시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는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국어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으로 이유를 들어 국어교육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국어교육 불필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국어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의 회의적 태도
2.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회의론
3. 국어교육 담당자들의 회의론

이 중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셋째 것이지만 첫째, 둘째 것 역시 전혀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의견이라 생각된다.

II.

사람은 누구나 당해 언어의 母語 사용자라는 자격 하나만으로도 그 언어의 교육에 대하여 단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본다. 학교 교육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이 왜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맹목적으로 의례히 있는 것,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식 학교는 물론 국어나 국자를 가르치는 공식 기관이 없던 옛날에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웠고 그것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였다. 漢學을 가르치는 언어 또한 한국어였고 그것을 통해서 한학의 심오한 원리를 터득하기도 했다. 전문적인 내용이 적힌 것은 한자 한문에 의해서지만 그것을 講하고 이해하는 것은 한국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漢學만 배운 사람들도 한국어로 좋은 글을 썼다. 훌륭한 문학 작품이 발표되었고 그것을 읽었으며 도범이 될 만한 서간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도 그렇다. 학교에 입학해 본 적도 없지만 자신의 언어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학교의 국어교육이 사치스럽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될 수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누가 관찰해도 입학 직전의 어린이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필요한 언어 사용법을 터득하여 불편 없이 살고 있다.

이런 형편들을 보면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에 대한 회의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사한 의견들을 전적으로 이유 없다고 하여 물리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정직하게 말하면 그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는 근거도 없다. 그저 막연하게나마 교육을 받으면 안 받은 것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으로,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단계가 오면, 그것은 국어교육이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을 때라고 생각해도 좋을

Ⅲ.

국민 학교부터 고등 학교까지 12년간 국어교육이 행해진다. 국가가 정한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편찬된 국어 교과서를 학습한 사람들이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육을 얼마나 받았고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장치나 방법조차 현재로서는 없다.

틀림없이 12년 이상의 국어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많은 사람들의 국어 사용의 현실이 결함 투성이인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책임이 국어교육의 잘못으로 돌려지고 있기도 하다. 학교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교육에서 얻은 것이 언어학이나 문학의 지식인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국어 사용 능력이 학교에서 받은 국어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 교육에서의 언어의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타인은 물론 자신의 경우에도 어느 것이 학교에서 습득한 국어 사용 능력이고, 어느 것이 학교 국어교육과 관계없이 습득한 국어 사용 능력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학교의 국어교육이, 국어 사용 능력에 관한 限, 자신에게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그것을 긍정하기도 부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막연한 생각이나 말에 동의하거나 동감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5년 주기로 교육 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거니와,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관계의 세미나나 회의에서 다른 교과 담당자들이 국어과 수업 시간이 많다고 항의 비슷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공식적으로 국어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는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들을 한다. 아무리 자기 교과와 시간을 늘려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말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어 시간이 더 많아야 한다거나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킬 방법도 없다. 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이나 회의론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근거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어니까’ ‘애국애족하는 정신...’ ‘국어사랑 나라사랑’과 같은 직접

언어 사용 능력과 관계 없는 것을 내세우는 것으로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Ⅳ.

어떤 중학교에서 여러 학급의 수업을 담당한 교사가 한 학급에서는 교사에 의한 수업을 일체 하지 않고 모든 시간을 자습서를 읽게 했다 한다. 그리고 나머지 학급들은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다. 그리고 시험을 친 결과 성적은 수업을 하지 않고 자습서를 읽게 한 학급이 제일 좋았다는 것이다.

이 이상의 정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성급한 단정을 내릴 계제는 아니라 생각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적어도 그런 실험을 한 교사는 자습서 이상의 것을 가르쳤는지 의문이다. 교사의 학습 지도가 자습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며, 자습서만 읽거나 수업을 받거나 다를 것이 없다면 굳이 교사에 의한 학습 지도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자습서만 읽어서 수업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 내지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 교사의 지도 내용도 자습서의 내용도 지식 전수 위주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자습서만 읽어서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식의 암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교사가 실시한 평가의 문항들 또한 지식의 암기를 알아보는 것이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셋째, 이러한 현상이 특정한 한 사람의 교사에 국한된 문제나 아니면 국어교육 일반의 문제나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만약 국어교육의 일반적인 경향이 이러하다면, 피교육자들의 국어 사용능력을 신장시킨다는 교육법이나 교육 과정의 교육 목표 달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의 글을 모아 엮어서 교과서를 만들고 그것을 읽히고 그 내용인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치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 온 우리 국어교육의 실상을 아

는 사람이면 이상과 같은 일은 조금도 놀라운 사건이 아니다.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이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실제 지적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과연 국어교육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회의적인 태도는 소위 국어교육의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V.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란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두 측면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어느 한쪽에만 편중된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은 잘못된 교육이나 자연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박한 생각은 결국 사람의 언어 발달을 자연 상태로 방치해도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몇 가지의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문자언어보다는 음성언어 편중의 발달을 보이게 될 것이며 그나마도 충분한 발달을 이룩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자연 상태로 방치된 언어 사용은,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適格性이 낮은 언어, 容認可能性이 낮은 언어가 되기 쉽다. 셋째, 발음 기타에서 지역적인 편차가 두드러지게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 잘못된 국어교육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 그 어느 경우에도 피교육자들의 세련된 언어 발달이나 현대 사회에 적합한 언어발달을 유도하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은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할 피교육자로 하여금 어떤 상황하에서도 적절하고 효과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단계적으로 신장시켜 주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국민들은 학교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언어 사용 능력이 그들의 교육 수준에 걸맞게 신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철저한 언어교육이 곧 인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구나 국어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이고 그것은 技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 능력을 기르거나 기타 도덕적 인간을 만들기 위한 소위

인간 교육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은 청산되어야 한다. 언어 사용 능력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인간의) 능력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언어교육이 곧 인간 교육인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점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다른 말로 바꾸어 다시 강조한다면, 국어교육이 담당하는 인간 교육은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분화된 학교 교육 제도하에서 국어과가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이 능력을 길러 주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능력에 치명적인 결손을 안겨 주는 것이다.

VI.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을 평가하는 몇 가지 중요한 항목 중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은 대체로 문자언어에 큰 비중이 놓여 있었다.

둘째,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에서는 대체로 언(국)어학이나 (국)문학의 비평적 지식이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표준어를 제정한 지 반세기가 넘지만 그 표준어라는 것이 거의 어휘소 선택의 문제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표준어 발음은 최근에 와서야 겨우 제정했다. 교육이 보급되어 문자언어에서는 표준어 시비가 일어나지 않고 음성언어의 경우에만 표준어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 그 때문이다.

교육 과정에는 엄연히 ‘말하기’ ‘듣기’가 내용 영역으로 들어 있지만 그 부분의 교육이 실제로 소홀히 다루어졌으며 또 교육 과정에서나 실제 수업에서나 ‘말하기’와 ‘듣기’ 그 자체보다는 ‘말하기’와 ‘듣기’에 관한 지식의 주입이 다루어지는 데 그쳤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글쓰기’에서도 만족스러운 교육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국어 사용 능력 신장보다는 언(국)어학이나 (국)문학의 비평적 지식 위주의 교육이었다는 평가는 이제 상식으로 되어 있다. 표현이 부족해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표현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

가들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외국에서와는 달리 아직도 국어 교재로 선정된 문장의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국어학 국문학이 국어교육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할 문장도 장르, 내용, 그리고 필자를 고려해서 선정해 왔으며 언어의 難易와 같은 것이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되지 못했다. 한눈을 팔아 온 셈이다. 국어교육이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이 아니라 인문·사회·자연 과학 등 제 분야의 지식을 가르친다는 인상을 주게 된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의 전문 분야에 속하는 그런 지식은 각각 해당 분야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며 국어 교사는 그것을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거니와 그럴 능력도 없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지식을 전수하는 일도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국어교육, 무성격한 국어교육을 해 온 반작용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과격하게 표현되는 경우 국어교육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국어교육에 대한 경고의 하나로 받아들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VII.

위에서 언급한 한 교사가, 일련의 체계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그런 실험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흥미에서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실험을 해 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의 국어교육에 대한 석연치 않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보다 더 구체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회의는 많은 국어교육 당사자들 사이에 확산돼 있다.

이런 종류의 실험 결과는 현재까지의 국어교육에 대한 비판의 한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개선책을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선진 외국의 국어교육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국어교육은 우리 문제니까 우리의 독자성을 살려야 하며 외국이 어떻게 하고 있

는가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본디 문화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우리가 많은 분야의 학문, 기타 문화를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선진화해 가면서 유독 국어교육에서만 쇄국주의를 택할 이유는 없다. 영국 사람들의 영어교육이나 한국 사람들의 한국어교육이 본질적으로 같은 관계라 생각된다. 우리가 지켜야 할 독자성, 차별성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어가 영어의 그것과 다른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에 있다. 수백년의 국어교육의 역사를 지닌 그들의 시행착오와 그들의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천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국어교육의 발달을 위하여 참고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인류가 함께 진보 발전하는 기본 원리인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의 하나다. 우리가 겪고 있는 국어교육 발전 과정 또한 그들의 것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는 듯하다. 미국에서는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언어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고 언어를 가르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Halliday(1964)는 영어교육이 통째로 문학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수중에 드는 일이 자주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시기적으로 30~50년 뒤진 감이 있을 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국어교육과 언어학이나 문학과와의 관계 정립을 놓고 대립되어 있다. 그리고 드디어 '영토 싸움'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모양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어교육이 제 자리를 찾기 위한 논쟁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라면 조금도 나쁠 것이 없다. 어차피 겪어야 할 국어교육 발전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오히려 권장하고 싶다. 다만 어느 편이나 Halliday가 언급한 '생계, 위신, 세력' 등등이 작용하지 않은 싸움이여야 한다. 그리고 싸움을 하되 학문적인 대립은 좋지만 감정적인 대립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도 언어교육에 관한 본격적 연구의 역사는 길지 않다. 그러나 언어학 문학 철학 등 다른 분야에서의 언어교육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은 있었다. 이것들은 각각 자기들의 관점에서 언어교육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교육 논의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관점보다는 언어교육에 발을 디디고 서서 다른 학문이나 예술 어느 부분이 언어교육과 어

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언어교육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일부에서 말하고 있듯이 언어학과 문학의 싸움이 아니라 국어교육과 언어학·문학의 대립이다. 이 점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국어교육 논의는 혼란에 빠진다.

VII.

대학의 '국어'가 필요한가 아닌가의 문제는 고등 학교까지의 국어교육의 수준에 의해서 달라진다.

고등 학교까지의 국어교육이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며 거기서 국어교육을 끝내도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국어교육이 행해질 수 있다거나 그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학에서는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는 그 필요성이 훨씬 줄어 들지만 고등 학교까지의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국어교육이 그 목표의 절반도 성취시키지 못했다면 대학의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는 필요하다.

대학의 '국어'가 초·중·고등 학교의 국어교육의 연장이 아니라도 된다면 굳이 '국어'라는 이름으로 남겨 둘 필요는 없다. 국어 국문학의 영역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내용을 선택하여 교양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국어교육이 중학교는 고사하고 고등 학교를 마친 경우에도 충분한 국어 사용 능력을 습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국어'는 고등 학교의 연속으로 행하여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학의 '국어'가 불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노현되어 왔고 최근에도 일부 대학에서 '국어'를 필수에서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고등 학교는 그만 두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충분한 국어 사용 능력을 습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국어' 교육이라면 그것을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로 이수시킬 필요는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국어'는 그 존속 여부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등 학교까지의 교육 여하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현실로는 ‘국어’를 선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기보다는 개선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국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모든 학생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을 다투어 수강 신청을 하는 교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어’는 머지 않아 존속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역시 충분한 연구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약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한다.

IX.

언어 사용 능력은 인간의 기본 능력이다.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 목표인 언어교육은 그 자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인간교육이다. 국어 사용 능력은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능력이다.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 맞추어서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도 모해야 하거니와 그 책무를 맡는 교과 교육이 바로 국어교육이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지식의 교육이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대답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더니 국어 사용 능력이 어느 정도 신장되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여 교육을 포기하거나 그 개혁을 단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국어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한다.